



보도	2025.2.10.(월) 조간	배포	2025.2.7.(금)		
담당부서	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 조사2팀	책임자	국 장	최성호	(02-3145-8220)
		담당자	팀 장	오동균	(02-3145-8235)
	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	책임자	본부장	정형규	(02-2003-9014)
		담당자	부 장	김효실	(02-2003-9420)

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결과 조치 및 유의사항 안내

- ② ETF 광고 편 -

[주요 내용]

-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,
 -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(21.3월)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(24.8~11월)하고,
 - 점검 결과,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(‘대출’) 마련,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(‘ETF’, ‘보험’)하였습니다.
- 아울러,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요 금융상품별(‘대출’* → ‘ETF’ → ‘보험’ 순서)로 안내하고,
 - * '25.2.3. 보도자료 참고
 - 이후에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주요 점검결과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 배포할 예정입니다.
- 두 번째로 ETF 광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.

주요 미흡 사례

- ① 오인 가능성이 있는 수익률 표시
- ② 부적절한 문구 사용
- ③ 중요 사항 미기재

소비자 유의사항

- ① 광고상 제시하는 수익률은 특정 시점 또는 목표수익률일 수 있습니다.
- ② ETF 상품은 손실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임을 유의하세요.
- ③ 최저, 최초 등의 과장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.
- ④ 장기투자 고려시 광고에 안내된 수수료를 확인하세요.

1 주요 점검결과 및 시정조치

◇ (점검대상)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 광고(커버드콜 ETF 160개 포함)를 점검

가. 점검결과

- (오인 가능성이 있는 수익률 표시) ETF 상품 광고에서 수익률을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오인 소지가 없도록 표기하여야 하나,
 - 일부 광고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기간의 수익률, 또는 예상·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

※ ETF(상장지수펀드, Exchange Traded Fund)란?

- (개념) 주로 인덱스펀드(시장지수와 동일한 성과가 목표인 펀드)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되도록 만든 상품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한 투자성 상품
- (특성)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이 결합
- (종류) 투자대상에 따라 주식형, 채권형, 주식·채권 혼합형, 원자재형 등으로 분류

- (부적절한 문구 사용) ETF 상품은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임에도 일부 광고에서 ETF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.
- (중요 사항 미기재) 장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'수수료에 관한 사항'을 기재하여야 하나, 일부 광고에서 이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.

나. 시정조치

-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번 점검대상중 확인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정·삭제 등의 조치를 하였고,
 -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자산운용사 대상 간담회('24.12.5.)를 개최하여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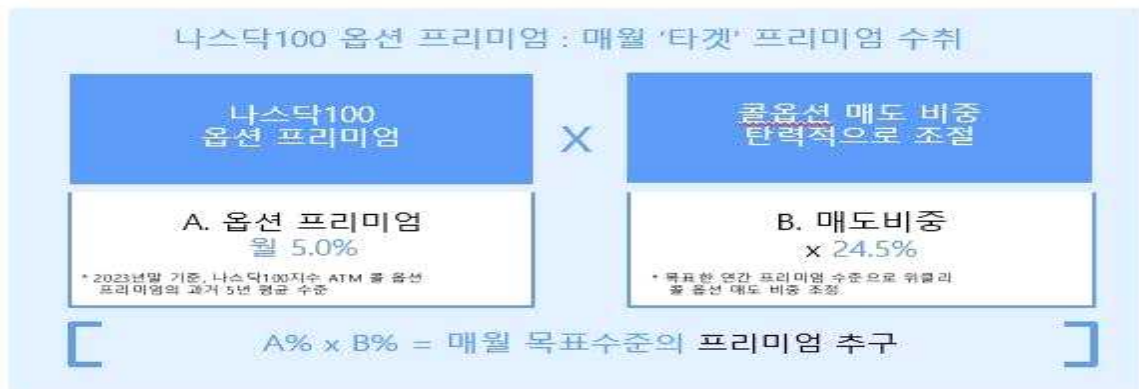
2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

1 광고상 제시하는 수익률은 특정 시점 또는 목표수익률일 수 있습니다.

- ETF 상품 투자 시에는 특정 기간의 성과만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, 장기 성과와 변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
-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광고물에서 제시된 수익률은 단기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수익률이거나 목표수익률*일 수 있으므로,
 - * 목표수익률은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로서, 확정된 수익률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
- 제시된 수익률의 의미를 제대로 살펴보고, 최소 1년 이상의 수익률과 상품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
[사례 ①] 목표수익률·미실현수익률을 기재한 광고

타겟 프리미엄 달성 방안 (예시)



※ 상기 전략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, 매월 분배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※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률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


② ETF 상품은 손실가능성 있는 투자상품임을 유의하세요.

- 투자 위험성을 축소하고 안정적인 수익만을 강조하는 ETF 상품 광고에 주의하고,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
- 특히,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광고의 경우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거나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으나,
 - 분배금은 ETF의 기초자산인 주식·채권의 배당·이자 등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, 지급된 분배금만큼 ETF 순자산은 감소하고 기초자산 하락 시에는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.

[사례 ②] 장래에 확정적 수익을 얻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

1억 투자하면 1년 뒤 1,080만원을 받아요

ETF 투자를 통해 제2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? 배당금을 받는 상품들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ETF를 통해, 1억을 투자했다면 매월 90만원 상당 (세전)의 분배금을 받을 수도 있대요. 오늘은 []의 '프리미엄 다우존스 ETF' 상품을 소개해 드릴게요.

작년 한 해, 국내외에서 많은 자금이 모인 곳은 SCHD (Schwab US Dividend Equity) 라는 ETF 상품이었어요. 이 상품은 배당을 주로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의 주식이 모인 ETF라, 투자만 해도 배당금을 꾸준히 받을 수 있어서 인기가 있었는데요. []에서 미국배당다우존스를 활용해 이 상품처럼 배당금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한국형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만들었어요. 그리고 특정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했고,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지 등 투명하게 상품에 대해 알 수 있어요.

③ 최저, 최초 등의 과장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.

- '최저', '최초' 등 투자자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된 과장 문구에만 현혹되지 마시고, 기준일, 비교범위 등을 함께 확인*하신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

* 기준일, 비교범위 등에 따라 최저·최초 등 최상급 문구의 진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

[사례 ③] '최저 보수' 표현을 사용한 광고

03 월배당으로 만나는 국내 최저보수 리츠 ETF

• 꾸준한 월배당으로 계획적인 배당 플랜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

• 국내 상장 리츠 ETF에 가장 저렴(연 0.09%)*하게 투자하는 방법! • 국내 상장 리츠 ETF 총보수 기준 (2024.01.31 한국거래소)

[사례 ④] '국내 최초' 표현을 사용한 광고



지수펀드(ETF) 운용자산 규모가 2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[]의 순자산총액(AUM)은 지난 8일 기준 2028억원을 기록했습니다. 2023년 한 해간 1,311억원 늘었고,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. 인도 증시가 지난해부터 상승세를 지속하고 투자자들의 자금유입도 활발했던 영향이 큼니다.

(중략)

[]은 지난 2014년 6월 국내 최초로 출시된 인도 ETF입니다. (출처 : 한국거래소, 24년 2월 14일 기준)

④ 수익률 뿐 아니라 광고에 안내된 수수료도 확인하세요.

- 동일 지수(KOSPI 등)를 추종하는 ETF 상품들의 기초자산에 따른 성과는 서로 유사하므로, 장기적인 성과는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*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* 운용·판매 보수 등의 총보수 및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값을 의미 (소비자가 ETF 투자 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총 수수료)

-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광고의 필수 기재사항으로, 소비자는 각종 수수료를 확인하고 이를 투자 여부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사례 ⑤] 수수료가 안내된 광고

구분	[] ETF
종목코드	[]
최초상장일	2014년 02월 17일
기초지수	CSI300 Index (위안화 노출형)
위험 등급	2등급(높은 위험)
합성 총보수	연 0.68% (집합투자업자: 0.539%, 지정참가: 0.001%, 신탁: 0.05%, 일반사무: 0.04%, 기타비용: 0.05%)
과세내용	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(보유기간 과세) : Min(매매차익, 과표증분) X 15.4%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: Min(현금분배금, 과표증분) X 15.4%

* 직전 회계기간 기준 증권거래비용 0.12%

5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
- 광고는 상품의 장점 부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유의 사항 등 투자자가 알아야 할 중요 정보가 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
-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통해 상품의 구조, 기초자산, 운용보수 및 기타 비용 등 필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3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지도하고,
-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투자성 상품 광고 현황 모니터링, 허위·과장 광고물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,
- 아울러, 허위·과장 광고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.